

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?

나는 그 알량한 의리 지킨답시고 네 앞길 막는 게 싫어. 내가 걸림돌 되는 게 싫다고.

추억 같은 게 뭐가 중요해.

나였으면 있잖아? 내 능력이 되든 말든 그냥 갈 거야.

네가 지금 이렇게 망설이는 게 나 두 번 죽이는 건데 왜 몰라.

나 진짜 쪽팔려

그 대단하신 분께서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잖아.

이걸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?

너만 보면 계속 이게 생각나. 내가 뭐가 부족한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.

겨우 겨우 떼낸 그 개 같은 그 습관들이 날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.

너는 내가 느끼는 감정 이해 못할 걸? 아니, 그냥 너만큼은 평생 몰랐으면 좋겠어.

사과하지마.

나 이거 미안해하라고 말하는 거 아냐. 나 지금 너 상처 주는 거잖아.

내가 미워?

나도 내가 너무 지겨워. 진짜...싫어.

알고 있잖아.

넌 나 이따구인 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.

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.

잘 가